

與, 등록금 감면 대학에 재정지원 검토... 간접방식 무게

대학 선 조치에 맞춰 재정 지원방식 2학기 등록금 감면시 반향효과 기대 상시적 지원 아닌 일회적 지원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오는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1학기에 낸 등록금에 비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확산하자 나온 논의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처럼 '현금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당의 의견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이 먼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하면, 정부가 대학별 재정 상황을 토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지는 않



21대 국회 향한 등록금 반환 촉구 대학생 필리버스터

/뉴스시스

는다'라는 원칙을 두고,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안을 내놓은 대학들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학의 자구 노력에는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뿐 아니라 2학기 등록금 인하도 포함된다.

대학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사실상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고, 대학이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 최근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가 처

음으로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2학기 등록금 감액을 하는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여러 지원 방안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학의 '자구 노력'

을 강조하는 것은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오는 학기에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등 노력을 한 대학을 선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이 동원되는 것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이런 여당의 지원 방안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학 등록금 인하 유도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

장학금 II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막고 있다.

대학알리미에公示된 '2020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6개 일반대학 가운데 181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10곳은 인하했다. 올해 학생 1인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6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93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등록금이 비싼 의학·공학계열 입학정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평균 등록금은 소폭 오른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등록금은 내려갔다.

다만 올 하반기 코로나 확산 추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인하를 학기마다 반복하게 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시적 지원이 아닌 일회적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줘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국회가 정상화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교육 당국과 함께 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려대-LG화학, 배터리 기술개발·인재양성 맞손

소재연구·AI교육 등 3개 분야 협력 국제적 플랫폼 협업 네트워크 구성

고려대가 LG화학과 함께 배터리 분야 미래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에 뜻을 모았다.

고려대는 23일 오전 11시 고려대 수당삼양패럴티하우스에서 LG화학과의 배터리 분야 산학협력 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중훈 고려대 공과대학장, LG화학 전지사업본부 CPO 겸 배터리 연구소장 김명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 ▲빅데이터·AI 교육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먼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고려대-LG화학 차세대



LG화학 전지사업본부 CPO 겸 배터리 연구소장 김명환 사장(왼쪽)과 김중훈 고려대 공과대학 학장(오른쪽)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려대

배터리 소재 센터를 고려대에 설치하고, 협력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양극재 및 음극재 소재 개발은 물론 배터리 소재의 장(長)수명화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협력분

야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빅데이터·AI 교육에도 나선다. LG화학은 R&D 및 생산기술 인원 중 32명을 선발하며, 고려대는 선발된 인원에 대해 'DX(Digital Transformation) Expert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과정 이수자는 배터리 공정 시 발생하는 원천 데이터로부터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적절한 데이터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는 법을 익혀 향후 배터리 사업 내 분야별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LG화학이 전 세계에 새로 구축할 공장의 설계 및 운용에 적용될 스마트팩토리 혁신기술 적용을 위해 협력한다. 고려대는 최근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국내외 유명업체들과 국제적인 플랫폼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는 22일 학생 생활관(기숙사) 브니엘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삼육대

학생 290명 수용... 삼육대, '브니엘관' 준공 (학생 생활관)

사업비 100억 투입, 지하층~지상 5층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생활실 127실, 휴게실 3실, 스테디룸 4실 등을 갖췄으며, 총 29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2017년 증축한 또 다른 학생 생활관인 시온관, 에덴관과 지난해 준공한 살렘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생활관 수용인원은 1553명에 이른다.

삼육대는 지난해 22일 황준광 삼육학원 이사장과 김일목 총장, 신양희 전무이사, 이신연 상무이사를 비롯한 대학 주요보직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브니엘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 브니엘관은 건축면적 747.27㎡(약 226평), 건축면적 4,440.88㎡(1343평)에 지하 1층, 지

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생활실 127실, 휴게실 3실, 스테디룸 4실 등을 갖췄으며, 총 29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2017년 증축한 또 다른 학생 생활관인 시온관, 에덴관과 지난해 준공한 살렘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생활관 수용인원은 1553명에 이른다.

삼육대는 이처럼 대폭 확충된 생활관 시설을 '레지덴셜 칼리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숙형 대학을 뜻하는 레지덴셜 칼리지는 주거공간인 생활관을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이현진 기자

카이스트, 세계 최고성능 DBMS 개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옵티마이 시스템 대비 처리속도 88배 SQL 질의, 기존 DBMS와 다르게 처리

국내 연구진이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목적에 맞게 검색,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끌어올렸다.

KAIST는 전산학부 김민수 교수 연구팀이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 SQL(구조화 질의어) 처리 성능을 대폭 높인 세계 최고 수준의 DBMS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KAIST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 연구팀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산업 표준으로 사용되는 SQL 질의를 기존 DBMS

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성능을 기존 옵티마이(OmniSci) DBMS 대비 최대 88배나 높은 신기술을 개발했다.

또 DBMS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산업 표준의 최신 벤치마크인 TPC-D S 벤치마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기존의 상용 DBMS보다 5~20배나 더 빠른 사실을 확인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 SQL서버·IBM DB2 등 타 DBMS에도 적용할 수 있어 고성능 SQL 질의 처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



KAIST 전산학부 김민수 교수(좌측 위), 남윤민 박사(우측 위), 한동형 박사과정(우측 아래)

/KAIST

센터 사업 및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IITP SW스타랩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김 교수의 제자이자 미국 옵티마이에 재직 중인 남윤민 박사가 제1 저자로, 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hys@

건국대, 'ICT 혁신인재 양성사업' 선정

자율주행차량 관련 전문가 양성

건국대는 김기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차세대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 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ICT 혁신인재 4.0' 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 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은 향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C-ITS(차세대 지능

형 교통시스템) 등 자율주행 차량 네트워크 기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상황 인지를 위한 센서와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인공지능화 등의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을 다룬다.

건국대는 "인명과 관련된 자율주행 차량의 특성상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 플랫폼 전체에 걸친 정보보안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핵심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